

# 강진군, 시장 살리고 청년 창업 돕는다

### 병영면 도시재생 청년가게 조성 청년 예비창업자 입주 심사회의 지역특산물 활용 특화음식 활성화



지난 14일 강진군 관계자들이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한 심사위원회에서 청년 세프가 선보인 요리를 시식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면 단위 5일 시장을 살리고 청년 창업도 살리는 정책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 병영면 5일시장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진읍 청년숲 공유부에서 진행된 이날 심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병영5일시장에 입주할 희망한 청년들이 자신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직접 요리를 시연해 시식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진 특산물인 여주를 활용한 파클과 병영마을을 활용한 파스타, 병영 연탄불고기를 토핑한 피자 등 기존 병영상권에 없는 특화음식을 선보이는 등 맛 뿐만 아니라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더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심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당뇨를 앓는 아버지가 있어서 강진의 여주를 알게 됐고 여주파클을 고안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 4도3촌 병영사

태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병영면으로 이주하고 창업의 꿈을 꾀다. 청년가게를 무대로 원하는 것을 펼칠 수 있게 돼 설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청년은 오는 4월 개장하는 '불금불파'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방문객들이 병영 연탄불고기와 곁들일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선보

일 예정이며, 음식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영면 도시재생 청년가게에 입주한 팀은 향후 2년까지 창업공간이 제공되며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시장이 쟁긴다...나주시 직소 상담실 개소

### 민원인 직접 만나 애로 해소 시장 직통 바로문자 서비스도

"시장실 문턱을 낮춰 더 가까이에서 듣고 더 빠르게 시민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운병대 나주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일대일 직소 민원 창구'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주시는 운 시장이 지난 13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시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 직소 상담실' 첫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문을 여는 직소 상담실은 찾아가는 마을좌담회에 이어 시민과 눈을 맞추고 의견을 직접 주고받는 '대화형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올해 신규 시책으로 도입했다.

사전 신청한 민원인이 운 시장과 일대일로 만나 평소 불편했던 애로사항을 말하고 시장에 관한 질문과 정책 제안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당장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차선책을 제시하거나 지속적인 개선 현황을 민

원 당사자가 안내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민 직소 상담실' 페이지를 클릭한 후 접수하면 된다. 민원 상담은 10명 이내 선착순으로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처리에 그치는 일회성, 단방향 회신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 해소 이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 2-3회 추가적인 피드백(개선 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후 관리형' 민원 소통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시청 방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나주시장 직통 바로문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이 시장 직통 업무용 휴대폰 번호(010-3147-8898)로 문자를 보내면 요청 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소 3일 이내 답장을 받아볼 수 있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민원을 단순 처리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기존 인식 틀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시정을 공감받을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소 상담실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담양군 고비산 산벚꽃 사진 촬영대회 열린다

### 4월 5~6일 이틀간 진행

담양군이 화려한 고비산 산벚꽃 자연 경관을 널리 알리고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1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전국 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촬영대회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접수는 오는 4월5일 오후 4시, 4월6일 12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작품 응모를 희망하는 사진 애호가 등 관광객은 고비산 산벚꽃을 촬영한 작품을 현장에서 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금상(1점) 100만원, 은상(2점) 50만원, 동상(3점) 30만원, 가작(5점) 20만원, 장려상(5점) 10만원, 특별상(32점) 5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이번엔 입상한 작품은 오는 5월11~15일까지 열리는 제23회 담양 대나무 축제 기간 죽녹원 내에 전시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담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 화순경찰, 효율적 교통관리 용역의뢰 간담회

### 드론 활용 등 축제 관리 방안 논의

화순경찰이 지난 14일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화순군청 관련부서와 축제 관련 연구용역 의뢰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축제 등의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화순군은 앞서 지난해 9월에 개최한 '화순 고인돌 가을꽃축제'에서 화순경찰서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교통관리 체계를 도입해 한 건의 교통사고 없는 안정적인 교통관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어 11월에 개최한 '낙화놀이 축제'에서는 예상

운집인원 분석에 실패하는 등 일시적 인파 폭증과 통신마비가 발생해 화순을 찾아온 관람객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낙화놀이 축제 이후 경찰서 대책회의를 통해 화순군과 협조해 추진했던 지역 축제 대비 전문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을 위한 것으로 2024년 고인돌 봄맞이 지역축제 시작에 맞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한 건의 교통사고 없이 귀가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교통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이달승(가운데) 장성소방서장이 생활안전 봉사활동 중 자동확산소화기를 점검하고 있다.

## 장성소방 취약층 주택 화재안전 점검 봉사활동

### 35가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도

장성소방이 지난 14일 장성읍 장성읍 하오마을을 방문해 생활안전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성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는 장성군 전문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 지역 안전 취약계층을 찾아 ▲주택 화재안전 점검 ▲안전 위험요인 제거 ▲생활상 불편사항 해소 ▲119안심콜 가입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김희석 전남도의회 의원도 참여해 봉사활동의 폭을 넓혔다.

또 장성군 전문의용소방대에서는 장성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35가구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물품을 설치해 초기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봉사활동을 이끈 이달승 장성소방서장은 "안전 취약계층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관계부서와도 적극적인 협업활동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